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

기후위기 시대 속 원자력 역할 모색과 전략 수립
국내외 원자력계 주요 인사 600여 명 참석 성황



한 국원자력산업협회는 5월 11일(화)~12일(수) 양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1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차대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제로 에너지—原子力'을 주제로 삼아 기후위기 시대 속 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모색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연차대회에서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협

회 회장은 영상으로 참여하였으며, 용흥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 김희수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양승욱 전자신문 사장, 이점식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김규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을 비롯해 국내외 원자력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1일 오후 연차대회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정재훈 회장의 개회사, 용흥택 차관과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정재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원자력계는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혁신형 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특히 원자력 중소·중견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것”이라며 원전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자력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UAE 바라카 1호기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원자력의 안전성과 내실을 다져왔다”며 “변화와 성장의 변곡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흥택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는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으며 이는 UAE 바라카에 수출한 원전의 성공적 준공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원자력계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앞으로의 원자력 정책 키워드를 제시하였다”며 “원전 안전성 극대화, 한국형 SMR 모델 개발을 통한 미래 신시장 공략, 수소생산 및 우주해양 분야에서의 활용, 방사선 고부가가치 융복합 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신산업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경주가 원자력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중심지 경주에서 연차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는 “경주에서 2021 원자력연차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경상북도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원전 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원전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모든 주기를 가지고 있다”며 “원자력의 성지인 경상북도에서 최고기술을 가진 원자력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부시장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메카 경주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환영사를 시작했다. 이어 “경주시는 원자력 전생애 사이클의 핵심 시설 및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서 전 세계 에너지산업과 그린뉴딜에 기여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며 “경주에서 원자력의 혁신과 경상북도 차원의 국가 대표 그린뉴딜 전략 설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한국원자력기술유공자 표창, 원자력국제협력 및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 유공자 표창 수상이 이어졌다.

연차대회 첫 날 오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 에너지전략」이라는 주제로 패널세션(I)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원자력산업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패널세션(II)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유영숙 이사장의 현장인터뷰 및 George Borovas 헨튼앤드류스커스 원자력부문장의 영상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개회식 이후 기조강연자로 나선 유영숙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가 기후위기,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다중위기를 겪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필두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며 원자력계를 포함한 전체 과학기술 연구자, 정책입안자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Ali Al Hammadi UAE 나와에너지 사장이 ‘바라카 원전 - UAE에서 APR1400의 운영 및 유지보수’, Michal Wierzchowski 폴란드 에너지인프라 특임장관실 부국장은 ‘폴란드 원전 프로그램 - 폴란드의 청정에너지를 향한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였다.

이튿날 오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

력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션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별세션에서는 Alesha Duncan 미국 에너지부 부차관보, 김용희 KAIST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개발,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 및 패널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차대회에서 기조강연자인 Ali Al Hammadi 사장과 Michal Wierzchowski 부국장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국하지 못한 해외 발표자들은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의견 및 정보 공유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 교류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참가자별 코드를 부여하여 공간별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3단계 방역 프로세스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1986년 제1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하며, 이번 연차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외 10개 기업에서 후원하였다. **KMF**